

My Dear Fr Simon and the Korean Community,

As you listen to my message being read, I ask each of you, to please be aware that I could not join you all in mass, because I am celebrating at 11.00am a mass in the Nursing Home.

친애하는 박 시몬 신부님과 한인 공동체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이 시간에 저는 요양원에서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축하를 나누는 11시 미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Today marks out a special beginning in the life of each of you, in faith you journey as a community with a chaplaincy, and Fr Simon as your leader, your journey which began 13 years ago, today enters into a life of its own, this is a big task, and ministry ahead,

오늘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여정과 삶 안에서 채플레인시 공동체로서 특별한 시작의 날로 기록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인 박 시몬 신부님은 약 17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여러분 공동체의 여정을 오늘에 이르러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안내하게 되며, 이것은 향후에 하나의 커다란 사목방향이 될 것입니다.

I ask you to say a special prayer for Fr Simon, and for all of us Priests, I ask you to remember all your past chaplains that have begun this journey, with many of you.

저는 우선 여러분께 박 시몬 신부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의 우리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분과 여정에 함께 해 주셨던 거쳐가신 모든 주임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chaplaincy reminds us we are together in all this, Its God's grace that is brought alive in and through your culture, and the joy that opens forth is the joy that allows the growth of his kingdom, in our parish community.

채플레인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즉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를 통하여 드러나시며, 그 은총으로 인한 기쁨은 사방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해 주는 동력인 것입니다.

Our Lady Queen of Peace Church Normanhurst, is your physical church, a building where you will gather in worship, while you pray as a community,

평화의 모후 노만허스트 성당은 실질적인 여러분의 경당이며, 여러분들의 독립된 공동체로서 하느님께 경배 드리기를 위해 함께하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say a prayer for us all, and find ways and means to make this place of worship, sacred with your personal, warmth, love and hospitality, and please remember all those who have gone to God who have worked to leave behind, this place of worship including it's first Pastor, who built up the place fr Frank Vaghun.

이 성당이 경건한 장소로서 여러분 개개인의 온정과 사랑 그리고 누구나 환영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서 방안을 찾아 가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경당을 지어 첫 번째 본당 사제로서 하느님께 경배 드렸던 프랭크 본 신부님을 기억하며, 이전에 이곳에서 하느님께로 다가가신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ave a great Celebration in prayer, and be assured of my prayerful support to each of you.

I shall gather to celebrate with you at lunch.

God Bless you all...

기도 안에서 멋진 잔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로써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저는 점심 식사 시간에 함께하여 잔치의 기쁨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Fr. Peter deSouza

Dean & Administrator

Hornsby Cathedral Parish

Waitara..NSW 2077

혼스비 대성당 관리 사제

피터 데수자 신부 드림.